

## ‘임을 위한 행진곡’ 끝내 퇴출시키나

박승훈 처장 “5·18 기념곡 제정 강행”을 기념식장 제창도 외면... 반발 확산

박승훈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5·18 광주민중항쟁 공식 기념곡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5월 광주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추모곡으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방통행식’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화사한 봄꽃의 향연      2일 광주시 북구 율봉동 북구청사 광장에서 여고생들이 향기로운 봄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다. 북구청 광장엔 지난달 ‘봄꽃축제’에 선보인 국화·미니 장미·할미꽃 등 10만점이 전시돼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박승훈 국가보훈처장은 2일 광주시 북구 율봉동 광주지방보훈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5·18 추모곡 제정과 관련) 5·18 33주년 기념식이 끝나면 기념곡 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공식 추모곡을 공모 형식으로 제정하겠다고 며 예산으로 4800만원을 책정한 만큼 새로운 추모곡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박 처장은 또 “기념식은 광주 시민만의 행사가 아니고 정부의 기념행사”라며 “정부의 모든 기념식엔 기념곡이 있고 이경도 없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많은 의견이 있다.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공식 기념식수에 포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갈등(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기념곡 제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올 5·18 33주년 기념식수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포함할

지 여부를 묻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9~2010년에는 기념식 공식 식순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었고 2011~2012년에는 참석자 제창이 아닌, 합창단만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올해도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제창 방식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처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당장, 기념식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춘식 (사)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은 “지난 30년 이상 불려온 노래인데, 정부에서 못 부르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부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식 참석 여부를 5월 관련단체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근태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 음

직임은 5·18 민중항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시도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2일 정례조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식 참석자들이 모두 부를 수 있도록 식순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 국가도 굉장히 과격하지만 역사성을 따져 부르고 있다”고 언급한 뒤 “다시는 소모적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정부 입장을 비판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박현민(@0518)씨가 올린 “지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빼고 싶었지만 머지않아 5·18 기념식을 빼고 싶은 것이겠지”라는 글이 공지역 작가 등에 의해 리트윗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지자체 0~5세 무상보육 중단 위기

정부·국회 지원 개정안 처리 하세월... 광주·전남 등 8월이면 예산 바닥

광주·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되면서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0~5세 전연 무상보육이 시행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올해 0~5세 보육 예산은 전년 1954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486억원이 늘어났으며, 전남도도 지난해보다 905억원 증가한 2857억원에 이른다. 이 중 미확보 예산은 광주시 432억원, 전남도 270억원 등이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오는 9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의 타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의 국비지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비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서울 20~40%)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난달 16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내 통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마땅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비율을 20% 늘리면 1조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비 지원 비율을 개별법에서 정할 경우 향후 파장도 염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법으로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비율을 올리는 것은 막대한 국고보조금 부담도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외에 다른 사업마다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오는 6월 국회 임시회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 대신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알림**  
光州日報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62기 수습기자 모집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화간의 해

참사 6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한국 언론사에서 흔히 않은 ‘회갑 신문’이 된 광주일보는 ‘100년 신문’의 대를보가 될 참신한 일꾼을 널리 구합니다. 신문과 방송, 모바일이 어우러진 본격적인 융합미디어 체제를 갖춘 광주일보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전형방법	자격 및 대상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1981년 이후)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입사지원서 접수	4월 26일(금)~5월 21일(화)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월 24일(금)	개별통보
필기시험	5월 26일(일)	국어, 상식, 논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5월 27일(월)	개별통보
면접	5월 29일(수)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5월 31일(금)	광주일보사 지면 및 개별통보

▶ 접수처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총무부 (우편접수는 5월 21일 소인분까지 유효)  
▶ 필기시험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S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화간의 해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생태와 문화 체험의 장!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4.20 ~ 10.20 / 순천만 일원

주최: 산림청, JeollaNamdo, 순천시  
후원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공식후원 | Official Partners | 하나은행, KJB, 광주은행, 롯데칠성음료, GS칼텍스, kt, Official Suppliers | HITEJINRO, K2관광여행사, 농심, THE MML, 삼육식품

협찬: NH, NH농협, 사랑으로

콜센터 1577-2013